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4.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英 배심원단, 보수당 의원 흉기 살해범 '유죄' 판결**
 - 4.11 英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보수당 하원의원을 흉기로 21차례 난자해 살해한 소말리아계 영국인 「알리 하비 알리」(26세)에 대해 '살인 및 테러행위 모의' 혐의를 이유로 유죄 판결
 - * 同人是 '14년부터 스스로 극단주의에 심취, 대학중퇴 후 '외로운 늑대'로 활동
- **러, 탈레반 임명 외교관 자국 파견 수락**
 - 4.11 러시아 정부는 파키스탄, 중국 등에 이어 탈레반이 임명한 외교관을 자국에 파견하는 것을 수락했으나, 탈레반에 대한 합법 정부승인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설명
 - * 탈레반 외교부는 자신들이 '합법 정부'로서 해외 외교 대표부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

미주

- **美, 총기테러 차단 위해 사제·불법 총기류 단속 강화**
 - 4.11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사제 무기류와 '유령총(Ghost Gun)*'으로 불리는 불법 총기류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, 연방 주류·담배·화기·폭발물단속국(ATF) 국장으로 「스티브 데틀바흐」를 임명
 - * 총기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며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 곤란
- **美 뉴욕, 출근길 지하철역 총기 난사로 20여명 부상**
 - 4.12 美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오전 신원 미상 흑인 남성이 연막탄 투척과 함께 총기를 난사해 2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,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다음날 맨해튼에서 용의자 검거 후 테러 혐의로 기소
 - * 해당 역은 지하철 3개 노선 환승역으로 당시 출근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

아 · 태평양

- 알카에다 수괴, 인도 여성 무슬림 칭송 영상공개
 - 4.7 알카에다는 선전매체를 통해, 「알 자와히리」* 의 인도 ‘히잡 착용 등교 금지령’에 맞선 무슬림 여대생 칭찬 내용의 영상(4.5 촬영, 9분 분량)을 공개하며 그간의 사망설을 불식하고 건재함 간접 과시
 - * 현재 국제 지명 수배중이며, 美 정부는 2,500만달러(304억원) 현상 수배
- 파키스탄 법원, ‘뭄바이 테러’ 기획자 징역 31년 추가 선고
 - 4.9 파키스탄 법원은 이슬람 과격단체 LeT(라쉬카르 에 타이바) 지도자이자 ‘뭄바이 테러*’ 기획자로 알려진 「하피즈 사이드」(71세)에 대해 테러자금조달 혐의로 징역 31년을 추가로 선고하고 자산압류 명령
 - * '08.11.26~29까지 뭄바이 호텔 등에서의 연쇄 테러로 193명 사망, 293명 부상

중 동

- 이란, 인권법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24명 제재
 - 4.10 이란 정부는 고위 관리를 포함한 미국인 24명을 ‘테러 활동 및 반인권 범죄활동 가담’ 혐의자라며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으며, ‘대상자들은 이란의 「인권법」 및 「테러방지법」을 위반했다’고 발표

아프리카

- 부르키나파소,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으로 다수 사망
 - 4.8 언론은 부르키나파소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‘알카에다’ 연계 추정 이슬람 무장단체의 동시다발 테러공격으로 민간인 4명을 포함해 정부軍 12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 - * 부르키나파소는 인구의 60% 이상이 무슬림이나, '15년부터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반군세력의 유입으로 유혈분쟁이 발생하여 최소 2천 명 이상 사망

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

- '13.4.15 14:50경, 美 보스턴에서 마라톤 결승점 부근에서 약 180m 간격을 두고 두개의 폭탄이 연달아 폭발하는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60여명 부상(우승자가 결승점 통과후 약 2시간 후 발생)
- 사건 직후 CCTV 분석 등 수사로 러시아 체첸 이민자 가정 출신인 「타메를란 차르나예프」(26세)와 「조하르 차르나예프」(19세) 형제를 용의자로 특정, 동생 「조하르」를 검거(「타메를란」은 체포과정에서 사망)
- 조사 결과, 테러에 사용된 폭탄은 급조폭발물(IED)이며, 특히 그중 한 개는 '압력솥 폭탄'으로, 압력솥 안의 쇠구슬·못·금속조각 등이 폭발력으로 주변에 비산하면서 시민들의 크게 부상
- 범인 「조하르」는 '15년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'20년 종신형으로 감형 되었으나, '22.3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선고

< 압력솥 폭탄 >

- (정의) 사제폭탄(IED)의 한 종류로, 화약류 등 폭발성 물질의 폭발압력을 증대하기 위해 압력솥을 용기(casing)로 사용하는 폭탄
- (구성) 압력솥 안에 기폭제 및 장약과 함께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쇠구슬·못·나사·금속류를 넣고, 외부에 타이머를 부착
- (원리) 타이머 등 기폭장치 작동으로 주장약이 폭발,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응축되다가 임계압력 도달시 압력솥이 파괴되면서 찢어진 압력솥과 쇠구슬·못·나사 등 금속류가 주변에 비산하여 살상 및 파괴
- (비교) △응축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'파이프폭탄'과 유사, △비산하는 못·금속조각으로 살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'네일폭탄'과 유사

